

#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의 취업 활로 모색에 관한 고찰 -자격증의 필요성과 활용 방향에 대하여-

김형천<sup>1</sup>, 조태선<sup>2\*</sup>

<sup>1</sup>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sup>2</sup>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A Study on Employment Channels to Find A Way for Practical Music Students

-About the Need and the Direction of Use of The Certification-

Hyeong-Chun Kim<sup>1</sup>, Tae-seon Cho<sup>2\*</sup>

<sup>1</sup>Dept of Applied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sup>2</sup>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30여 년의 결코 짧지 않은 실용음악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취업은 여전히 풀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학원 강사 혹은 밴드활동 등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모두 안정적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다. 국력신장과 더불어 K-POP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 또한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과거, 사치로만 인식되었던 문화 예술분야가 대중에게 급격히 다가오게 되었다. 단순히 관람만이 아닌 직접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형태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정책에도 반영되어,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분야 교육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한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젠 해당 분야로도 취업 안목을 넓혀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관련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의 음악전공 중등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실용음악분야 중등교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혹은 실용음악 전문 교육 대학원 설립 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Abstract** Despite the numerous graduates being produced in practical music and history, which have not been shorter than 30 years, the employment of students remains an unsolvable task. Most graduates are employed by private institutes as music instructors or got involved in band activities, which are non-regular work and not stable. The rapid development of K-pop along with national strength has changed our lives as well. As a result,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which were previously recognized only as luxury, have rapidly become popular. In the form of learning, internalized and experiencing, not just watching has a huge imp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lives. This is reflected in national polici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art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at local community centers. It is time to expand its job-horizon to the relevant fields, and thus focus on promoting programs related to obtaining certificates to help our students find job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course for music teacher certification in the field of practical music that differs from the current music teacher certification of secondary schools. It is very urgent to establish the teaching course in four-year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Keywords** : Practical music, Employment, Not stable, K-pop, Community centers, certificates, Practical music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Choongwoon University)

email: 22019686@daum.net

Received November 2,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November 6,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 1. 서론

이 연구의 시작은 현재 실용음악과를 나온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있어 취업의 한 방편에 따른 고민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의 실용음악과는 벌써 그 역사가 30년이 지났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대학마다 입시 경쟁률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도 이루어 졌다.

전국에 있는 실용음악과는 그 명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대학 21개, 전문대학 20개로 조사된다[1]. 여기에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및 콘서트바토리 등을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해마다 많은 학생이 실용음악과 입시에 지원하고 그만큼의 졸업생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취업 현장에서 내세울 만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2년제 전문대학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만 해도 학생들과 교수들 자체에서 그 실효성이나 사용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상당수의 졸업생이 실기교사 자격증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아 지니고 있었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활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그에 반해 음악 관련 업계에 뛰어들 학생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실기교사 자격증의 덕을 토틉히 본 사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실기교사 자격증은 발급받을 당시 모두의 인식은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용음악 관련 자격증이였다.

이처럼 과거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실용음악 자격검정을 대표하던 실기교사 자격증이 현재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없어진 상태이다. 물론 문화예술사 자격증이 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지만 현 실용음악 교육과정과 괴리가 많아 쉽게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은 무자격자로 졸업을 해야 하고 관련분야 자격증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대표성이 없는 민간 자격증의 난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발급하는 형태의 비전문적인 자격증들만 존재한다면 음악의 미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체계적이고 확실한 실용음악 자격증이 어느 시기보다 요구되는 현실에서 그 가능성의 시작을 실용음악 학과의 현 교육과장에 도입해야 한다. 해당 자격증의 도입이 학생들에게 취

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진로에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 2. 본론

### 2.1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현 취업 상황

다양한 아르바이트 종류의 취업 형태를 제외하고 음악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업 형태로만 국한하여 정의한다면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가장 많은 취업 형태는 실용음악학원 강사가 된다. 많게는 일주일에 세 곳 이상 출강하고 한 학원에서 이틀 이상 강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대상은 대부분이 중, 고등학생들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상이 중, 고등학생들이라 방과 후에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대가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에게는 공연과 공연을 준비하는 연습시간과 중복된다. 게다가 주말은 더 바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데 음악전공자들에게 주말은 가장 중요한 연주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간임이 분명하다. 실용음악과를 어렵게 들어와서 자신의 음악을 위한 꿈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대부분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이 학원에서 푼돈을 위해 정작 예비 음악인으로서의 준비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2].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이 입시 레슨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취업 형태일 수가 없다. 입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그 자격이 갖춰져야 그 신뢰성이 확보된다. 단지 실용음악과를 재학 또는 졸업했다고 해서 취미 연습생들이 아닌 입시를 전제로 한 전공생들을 레슨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용음악 입시레슨 자체는 선생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단순 악기를 가르치는 일에 국한될 수 없다.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고 음악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 전공악기를 불문하고 모든 실용음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초적인 청음과 화성학 및 음악에 대한 역사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전국 모든 실용음악 대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커리큘럼이 공통으로 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용음악 분야가 고등교육에 있어 학문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입시레슨에 대한 자격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학원 취업 형태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위해 밴드 및 연주 활동에 매진하는 프리랜서

형태도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수 존재한다. 음악인으로서 외관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보이지만 지속 가능함에 대한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음악인이 처음 음악을 접하고 음악 세계에 들어오는 경로가 그냥 “좋아서”이다. 이로 말미암아 향후 취업에 관련한 어떠한 기술이나 자격 등의 준비단계가 철저히 무시된 상태로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틀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 거의 모든 학생이 음악과 생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다. 좋아서 시작한 음악이 생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물론 음악에 두각을 나타내는 상위 20% 이내 학생들은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홀로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위 소수의 경우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연주 자체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실상을 보면 위에 언급한 학원 아르바이트 취업 형태도 상위 20% 이내 학생들이 거의 차지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위 학생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현실이라 하겠다[3]. 학생들은 음악을 전공하기 위하여 어렵게 실용음악과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 마땅히 취업할 방향을 찾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와 관련자 전체가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용음악분야 전체에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 나이에 취미로 음악을 즐기는 시기가 지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할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시기가 오기 이전에 최소한의 준비가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프리랜서로서의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실용음악은 더욱 발전하고 또한 학문으로서의 입지가 생길 것이다.

## 2.2 학생 진로에 대한 실용음악학과 현황

실용음악과의 초기 교육과정은 해외 유명 대학의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답습하던 시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나름대로 한국식 실용음악과 방향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해외 대학교와는 다른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해외 대학교에서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은 거의 재즈에 한정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재즈의 중요성은 유지하면서 한류 및 가요 중심의 교육과정이 함께 도입되었다.

유학을 통해 해외대학 교육을 받은 재즈 기반의 교수진들과 한국 자체에서 가요 제작 및 음악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수진들이 공존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본다.

재즈 연주자들을 주로 양산해 내는 해외 대학의 경우에 비해 외관적으로만 본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한국 실용음악과의 모습은 한국 음악의 장래를 밝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음악 이외의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해외라 함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에 국한한다[4].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라 불리는 일들이 해외에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소득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의 음악 초년생들은 경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음악의 꿈을 펼칠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음악만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 노력을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극소수의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음악만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에 가서 음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음악만으로 자립을 하려면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음악의 꿈을 이루면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어야 한다. 원하는 주말에는 공연 등 자기계발을 위해 설 수 있어야 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연습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해외 학생들은 음악과 관련은 없지만 원한다면 풀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면서 음악 활동을 유지한다.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을 음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로 해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음악의 꿈을 존속시키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 상황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음악의 꿈을 향해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음악인 배출을 실용음악과에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 취업의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학과는 그 존재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와 더불어 실용음악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용음악 교수협의회 및 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

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교육과정에 녹여내야 한다. 이로써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용음악전공 학생들도 몇몇한 기능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학생들이 전공자로서 바라보는 취업에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및 자격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래 조사표는 실용음악 전공자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김태경의 논문내용이다.[5]

Table 1. Problems on the Current Curriculum of Practical Music Department

Awareness of Current Curriculum	Number of Rely	Response Ratio (%)
Lack of detail and expertise in theoretical subjects	34	12.78
Lack of connectivity in the curriculum	53	19.85
Lack of courses associated with employment	113	42.32
lack of theoretical subjects	12	4.49
lack of practical subjects	55	20.60
Total	267	100

Table 2. Student's Evaluation on Certificate of Practical Music

Awareness of Certificate Acquisition System	Number of Rely	Response Ratio(%)
It is institutionalized	28	10.49
It is partly institutionalized	47	17.60
It is not institutionalized	76	28.46
It is to be acquired personally	116	43.45
Total	267	100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용음악과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취업과 연관된 교육과정 부족, 관련 자격증의 개인 취득 등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동안 실기에 매진한 한국실용음악과 교육과정 형태에서 차츰 학생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 3. 자격증 활용 취업 활로 모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일부는 밴드 등 음악 활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이 이루어진다. 현재 방과후 학교를 비롯한 문화센터 강사는 실용음악 분야 취업의 활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프리랜서 개념이 강한 음악 분야가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음악 활동을 병행 할 수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 분야로 방과 후 학교와 문화센터 등은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장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계약.

두 번째,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해고의 위험이 없음.

세 번째,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시간을 증설 가능.

네 번째, 근무시간 오후 시간대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와 중복되지 않음.

다섯 번째, 학교와 문화센터는 전국각지에 분포하고 있어 접근이 매우 용이함.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학원 등에 비해서 안정적이며 음악 활동을 동시에 병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위 해당분야의 강사진의 대부분은 음악 관련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 가수, 연주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강사진을 구성될 경우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3.1 자격 기준

방과후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서 채용하는 강사의 기준은 관련 분야 자격증(민간자격증) 소지자로 되어있다. 방과후 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민간자격증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용음악 분야는 다소 늦게 4-5년 전쯤 민간자격증과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통용되고 있다.

학교나 센터 등에서 강사초빙 시 초빙조건은 학력이나 전공 여부가 아니라 바로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이다.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에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그리고 자격증으로 통일된다[6].

민간 자격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반인들이 관련 분야 기능을 습득 후 일정 평가를 받고 자격을 취득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2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정작 전문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졸업생들이 전공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시험과정을 거친 후 발급비용을 내고 발부받아 학교 등에 제출, 강사로 취업하는 년센스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발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3.2 자격증 현황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실용음악 관련 자격증 발급 기관은 2020년 현재 21개 단체에서 총 31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격증 명칭은 실용음악강사, 실용음악지도사가 대부분이며, 우크렐레, 플룻, 바이올린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격관리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자격증을 발급중인 기독교원을 비롯한 음악세계, 한울지식재단, 한국지식자원개발원, 한국여가문화운동연합회 등 실용음악분야와 특별히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단체에서 많이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실용음악 지도사자격증 과정이 만들어진 후 10여 년이 지나 다양한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4-5년에 불과하며, 현재 실용음악관련 민간자격증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7].

## 4. 결론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K-POP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 또한 바꿔놓았다. 그로 인해 과거 사치로만 인식되었던 문화 예술 분야가 대중에게 급격히 다가오게 되었다. 단순히 관람만이 아닌 직접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형태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정책에도 반영되어, 초, 중, 고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교육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한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민간 기관, 회사 등지에서도 자체적인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젠 문화

예술을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시, 도 지자체,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문화 관련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공교육기관에서도 관련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학교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관련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기 시작하였다[8,9].

현재 초, 중고는 물론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숫자도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이다.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취업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아직도 실용음악학원만이 졸업생들의 유일한 취업 대상 업종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이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생각도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의 취업문제는 대학에 가장 큰 화두이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모두 음악인으로 데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반영, 실질적인 실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0].

K-POP의 발전은 실용음악 관련 수많은 고등학교를 탄생시켰다. 최근엔 한국K-POP고등학교라고 하는 K-POP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실용음악관련 고등학교의 전임선생은 모두 음악교육과를 통해 교직과정을 이수한 클래식 전공 선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실용음악과 역시 초창기 클래식 전공 교수가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으나 현재는 대중, 실용음악 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풀어야 할 매우 큰 과제이다. 현재의 음악 전공 중등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실용음악 분야 중등교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혹은 실용음악 전문 교육대학원 설립 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K-POP과 함께 나날이 성장해가는 실용, 대중음악 분야에 걸맞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현재 실용음악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ye Won Jang, The Cultural Justification Process of Domestic Popular Music Focused on the Entry and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System of 'Practical

Music' pp.15-17, 2015

- [2] Sung Sik Park, Analysis On the Problems of College Preparatory Program In Applied Music Academy. pp.2-4, 2010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694> (192)
- [3] Seung Hoon Joo, The Bluesman : Stevie Ray Vaughan. Jay Blues Workshop. 2006. (56)
- [4] Woo Seok Yang, A Study on Curricula in the Overseas Department of Applied Music. pp.13-17, 2018
- [5] Tae Kyung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majoring in Practical Music on Employment Career Choice. 2016
- [6] Woo Seok Yang, Search of the Paths to Music Industry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a in the Department of Applied Music. pp.33-37, 2018
- [7] Seung Hyun Cho, A Study about nessesity for training an educator of popular music-Concentrating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nd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pp.385-386,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2.383>
- [9] J. S. Gong. & T.S. Cho (2017). A Study on the Birt h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ul Music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12). 455-46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55>
- [10] E.M. Kang, & T.S. Cho (2017). A study on the Improvisation for Jazz Vocal - Praticce and analysis using root position in chord and chord tones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6). 377-383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6.377>

조 태 선(Tae-Seon, Cho)

[중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월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김 형 천(Hyoeng-Chun, Kim)

[중신회원]



- 2019년 3월 : 여주대학교 국제협력처장
- 2017년 9월 : 여주대학교 학생처장
- 2005월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재즈기타